

은퇴농 생활자금 78세까지 지원

농림부 FTA 보완대책...주요 품목 하락엔 80%까지 지원

전업농, 일정 수준 소득 보전도...재원 마련이 최대 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적 개방에 대비한 농업 부문 보완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고령농에게 은퇴 유도 차원에서 농사일을 그만 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전업농의 경우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까지 소득을 배워줄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은퇴고령농 75~78세까지 매달 생활비 지원=농림부가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소개한 '한미 FTA 농업 부문 보완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달마다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75~78세까지 최

장 10년동안 지원하고,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업농 일정 수준 소득 보전=반면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향할 70세 미만 전·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가 적용된다.

농가 주요 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경우, 감소한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존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평균당 평균조수입을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 산출된다.

◇한미FTA로 농가 '생산액' 줄어다 소득보전=중장기적 대책들과는 별도로 직접적, 단기적 대책으로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도 마련된다. 한미FTA로 수입이 크게 늘고 가격이 떨어져 국내 관련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정부가 현금

으로 소득 감소분의 일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경우 단순 가격의 아닌 조수입(생산액)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입입이 일정비율 이상 늘면 직불제를 발동하되, 단순히 예전처럼 쇠고기, 돼지고기,감귤 등의 가격 하락 폭만 따져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실제 생산액 감소분을 따져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재원 마련이 최대 난제=전문가들은 일단 '전업농 중심의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뼈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여러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안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책과 관련, 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소요 재정 규모가 커 농림부가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7년만의 만남 '역시나'

미-이란 회담, 성과없이 4시간만에 끝나

"양국간 만남 자체가 큰 의미" 낙관론도

27년만에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대화가 28일 4시간만에 끝났다.

이번 회담은 애초 예상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4반세기 이상 대화의 벽을 쌓았던 양국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수차례 국제회의에서 양자 회담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산시켰다.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 입장에서 선화, 무릎을 맞대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그 자체가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서 마나면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담은 애초 양국이 밝힌 대로 이라크 문제에 국한했으며 이란의 핵개발프로그램 등은 거론되지 않았고 양국 대표단은 밝혔다. 또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회담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양국 대표단은 평가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는 이란이 미국과 이란, 이라크 3자가 참여하는 '3자안보 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측은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로커 대사는 이란이 추가 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이 언제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란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정책을 선회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동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자전거 보트 타보실래요" 리즈위엔이란 한 중국인이 28일 안후이성 허페이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와 재활용 타이어 등으로 만든 일종의 노(櫓) 보트(외륜선)를 타고 있다. 이 사나이는 자전거와 내버린 나무와 타이어를 이용해 이 같은 자전거 보트를 만들었으며, 재료비는 150위엔(20 달러)밖에 들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쌀 지원 재개' 여부 등 본격 의견 조율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막, 나흘 간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제20차 회담 이후 3개월 만의 회담으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남북 쌀 지원이 유보된데 대한 북측의 반응에 따라 회담 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북측 대표단은 권 책임참사를 비롯해 주동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식 내각 차사, 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지난 회담과 동일하게 구성됐다.

남측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진동수 재정부 제2차관과 박양우 문화부 차관,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영호 통일부 국장 등으로 대표단이 꾸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저녁 이재정 장관 주재의 환영만찬에 참석했으며, 회담 이틀째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수석대표 및 회담대표 접촉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남북자·국군



29일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 도착한 북측대표단 단장인 권호승(오른쪽) 내각 차사와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로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업 ▲열차 부분개통과 개성공단 통행·통관문제 등 경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남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상주대표부 설치 등도 이번에도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0일과 31일에는 남북 대표단 공동참관도 예정돼 있다. 현재 참관지로는 행주산성과 몽촌토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은 다음달 1일 오후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美 포브스지 '세계를 바꾼 인물 15인'

동서냉전 종식 기여 고르바초프 등 선정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신호에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 분야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세계를 바꾼 인물 15인'을 꼽았다.

▲**팀 버너스 리**=1989년 월드와이드 웹(WWW)을 창시함으로써 전 세계에 인터넷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프린시스 크릭, 제임스 왓슨, 로절린드 프랭클린**=영국 태생의 프린시스 크릭과 미국인 동료 제임스 왓슨은 1953년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했고 이 공로로 1962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 과학자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X 레이 영상이 없었다면 이들의 발견도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밀턴 프리드먼**=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 그의 자유시장과 정부개입 제한론은 1960년대 경제학 이론의 주변부에 있었으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중심적인 경제이론이 됐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구 소련 대통령. 1985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후 글라스노스트(개방)·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을 추진해 공산주의와 냉

전의 종식에 기여했다.

▲**잭 킬버, 로버트 노이스**=집적회로 개발자. 1959년 집적회로를 발명함으로써 빠르고 강력한 컴퓨터를 가능케했다. 노이스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을 1968년 공동 설립했다.

▲**폴 로터버, 피터 맨스필드**=MRI(자기공명영상)를 개발, 의학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지 루카스**=1975년 특수효과 스튜디오 ILM을 설립하고 영화 스타워즈를 제작했다.

▲**말콤 맥린**=운송사업자였던 맥린이 '부두의 크레인'이 트럭의 트레일러 부분을 통째로 들어올려 선박 위로 옮겨놓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선박용 컨테이너가 탄생했다.

▲**그레고리 핀커스, M.C 창, 존 로크**=핀커스와 창 박사는 1953년 호르몬이 동물의 배란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버드대의 로크 박사도 당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BDA 해결·골든로즈호 조사 한·중 외무 협력 합의

송민순 외교교통상 부 장관은 28일 양재초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 해결과 골든로즈호 사고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회의 참석한 송 장관은 이날 양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BDA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송 장관은 전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골든로즈호 사고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 측은 골든로즈호 사고 조사를 위해 신속한 조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송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안 쿠비시 슬로바키아 외무장관과 만나 2012년 여수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종목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신청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생, 태권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화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때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제1회 시험 국가공인자격 평균 60점 이상 합격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꿔서 하거나 사고현상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행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6-5115

- 자격인정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 한빛이 주도한다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 한빛 천하통일 -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79급 공무원전강좌 개설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풀이반 1개월 완성

농업직 "양승훈 교수팀" 특별초빙

호텔급 대형학원! 최강의 프로그래밍! 최고의 학습시설!

이구동성! 누가 뭐래도 한빛이 최고!

★ 개강 6월 1일 (주/아간반 예약접수중) ★

공무원학원의 1등 브랜드 **한빛고시학원** 전대후분 부구청앞

자매학원 : 김영핀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분 부구청앞 262-3553)

(062) 234-0234